

노 동 동 향

경제일반

최효미*

◆ 재고 급증, 가동률 저하

- 2003년 5월의 경제활동은 화물수송연대 파업 등 대외수출여건이 좋지 않아 침체 지속(표 1 참조)
 - 산업생산은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섬유·의복,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였는데, 부문별로 보면 내수 출하가 5.7% 감소한 반면, 수출 출하는 4.8% 증가
 - 재고는 석유정제, 의복 및 모피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3.1%포인트 감소한 73.9%로 전월에 비해서도 2.8%포인트 감소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재 수입액, 재고순환지표 등이 하락하여 전월보다 0.3% 하락(표 2 참조)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에 98.4(2000=100 기준)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
 -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제조업 가동률지수, 산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3% 하락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표 1> 산업활동 동향

(단위: %, 2000=100)

		2002					2003			
		3월	4월	5월	11월	12월	2월	3월	4월	5월p
생 산		7.1	10.6	9.2	7.2	9.5	10.2	5.0	1.9	1.9
제 조 업		7.3	10.8	9.4	6.9	9.7	10.1	4.6	1.6	-2.2
서 비 스 업		10.0	11.8	9.4	5.8	6.1	1.4	-0.2	-0.5	-0.8
출 하		7.6	10.7	9.2	7.1	9.3	7.8	3.3	1.2	-2.2
재 고		-8.4	7.1	-7.9	-1.1	0.3	7.8	11.0	11.6	12.5
평 균 가 동 률		78.0	78.1	77.0	77.1	77.0	77.9	76.9	76.7	73.9

주: p는 잠정치임.

평균가동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5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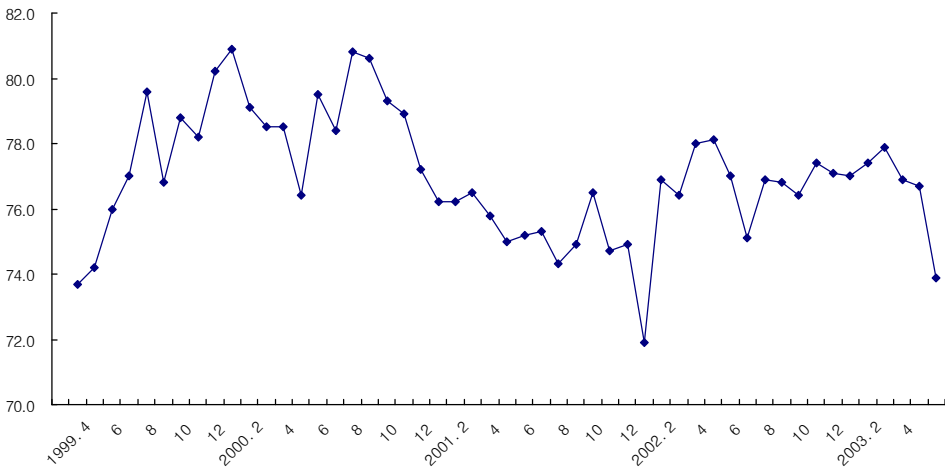
생산, 출하, 재고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광공업동태조사」에 기초함.

평균가동률은 제조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에 기초함.

자료: 통계청, 『2002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03. 6.

[그림 1]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표 2>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전월대비 %, 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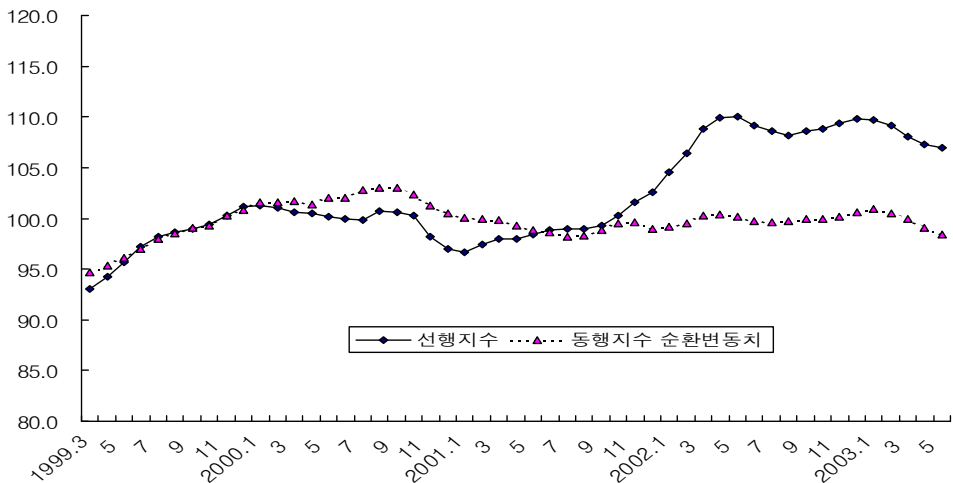
	2002		2003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p
선행종합지수	0.6	0.4	-0.1	-0.5	-0.9	-0.7	-0.3
동행종합지수	0.5	0.8	0.8	0.0	-0.1	-0.4	-0.3
후행종합지수	0.1	0.2	1.1	0.4	0.9	-0.1	0.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2	100.6	100.9	100.5	100.0	99.1	98.4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03년 5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6.

[그림 2] 경기종합지수

(단위 : %,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 물가상승세 둔화

- 2003년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표 3 참조)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출하가 늘어난 농축산물과 휘발유 등 유류 가격 하락으로 공업제품의 물가가 하락하여 전월대비 0.3% 하락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전월대비 0.4% 하락
- 6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1.1%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5% 하락하여 내림세가 지속됨.
 - 환율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석유·화학제품 등 공산품 물가가 하락하고, 농림수산물 출하도 증가하여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5% 하락

<표 3> 물가지수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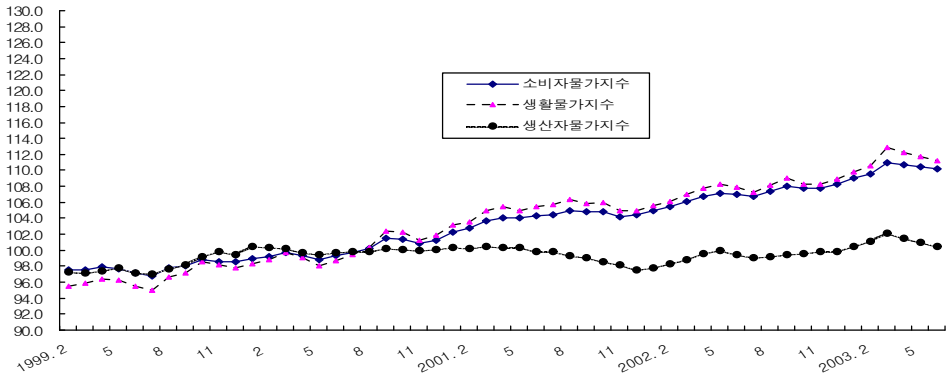
	2002				2003					
	3월	4월	5월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0.6)	2.5 (0.6)	3.0 (0.4)	2.6 (-0.1)	3.8 (0.6)	3.9 (0.6)	4.5 (1.2)	3.7 (-0.2)	3.2 (-0.2)	3.0 (-0.3)
생활물가 상승률	2.0 (0.8)	2.2 (0.7)	3.1 (0.6)	2.3 (-0.4)	4.0 (0.8)	4.2 (0.7)	5.5 (2.1)	4.3 (-0.5)	3.1 (-0.5)	3.1 (-0.4)
생산자물가 상승률	-	-	-	-	2.8 (0.7)	2.8 (0.6)	3.3 (1.0)	1.9 (-0.6)	1.0 (-0.5)	1.1 (-0.5)

- 주: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4) 생산자물가지수 산출 기준연도가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됨(자세한 사항은 2003. 7. 통계청,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참조).
 5) ()안의 수치는 전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2003년 6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3. 7.
 통계청, 『2003년 6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6.

[그림 3] 물가지수

(단위 :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DB.

◆ 무역수지 흑자 지속

- 2003년 6월 중 수출은 157.7억달러, 수입은 134.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3.5억달러 흑자를 기록, 4월 이후 흑자 지속(표 4 참조)
 - 2003년 6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57.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
 - 2003년 6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34.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원/달러)

	2002			2003					
	5월	6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 상 수 지	961.5	728.5	-646.0	-417.2	-110.6	-1,193.5	-366.8	1,184.8	-
수 출 액 ¹⁾	14,173 (6.5)	12,894 (-0.3)	15,026 (26.1)	14,326 (25.9)	13,349 (21.1)	15,402 (16.2)	15,775 (19.6)	14,794 (4.4)	15,773 (22.3)
수 입 액 ¹⁾	12,698 (9.9)	11,934 (1.8)	14,452 (27.9)	14,477 (27.8)	13,843 (32.2)	15,898 (32.6)	14,832 (18.1)	13,527 (6.5)	13,421 (12.5)
평 균 환 율	1,266.1	1,223.5	1,208.9	1,179.3	1,191.2	1,232.4	1,232.8	1,199.8	1,194.0

주 : 1) 통관기준.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3년 6월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3. 7.

한국은행, 『2003년 5월 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3. 6.

_____, 경제통계 DB.

노동동향

노동시장

최효미·강승복*

I. 고용동향

◆ 고용사정 악화 지속

- 2003년 6월 중 실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112천명 증가한 755천명(실업률 3.3%)을 기록
 -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6%(-132천명) 감소한 22,383천명을 기록
 -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23,13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14,192천명
 -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 62.7%에 비해 0.7%포인트 하락
- 2003년 2/4분기 실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62천명 증가한 751천명(실업률 3.3%)을 기록
 - －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0.5%(-120천명) 감소한 22,303천명을 기록
 -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23,055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4,243천명
 -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기 62.6%에 비해 0.8%포인트 하락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11천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13천명 증가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 6월 중 실업률의 증가 및 실업자수의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 등에서의 고용감소와 재학생들의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
- 2/4분기 중 전분기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55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670천명 증가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2		2003				
	6월	2/4 분기	1/4 분기				2/4 분기
				4월	5월	6월	
경제활동인구	23,157 (2.0)	23,112 (2.0)	22,439 (0.4)	22,912 (-0.5)	23,114 (-0.1)	23,138 (-0.1)	23,055 (-0.2)
참가율	62.7	62.6	60.3	61.5	62.0	62.0	61.8
취업자	22,515 (2.6)	22,423 (2.7)	21,633 (0.6)	22,156 (-0.7)	22,370 (-0.4)	22,383 (-0.6)	22,303 (-0.5)
실업자	643	689	806	756	744	755	751
실업률	2.8	3.0	3.6	3.3	3.2	3.3	3.3
비경제활동인구	13,794 (-0.5)	13,807 (-0.5)	14,755 (1.9)	14,350 (3.6)	14,187 (3.0)	14,192 (2.9)	14,243 (3.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실업자수 증가세 지속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
 - 전월대비 실업자수는 20~29세와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다소 증가
 - 20~29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0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1천명 감소

<표 2>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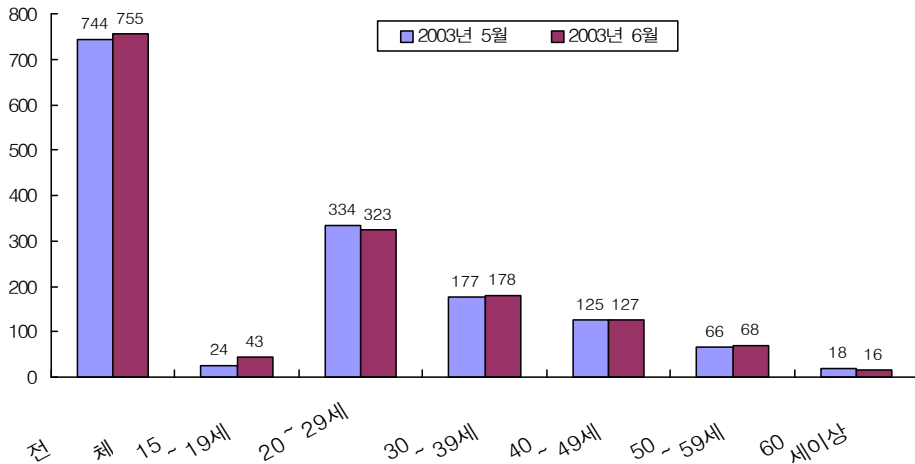
	2002. 6	2003. 5	2003. 6	증감인원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 체	643(2.8)	744(3.2)	755(3.3)	11	112
15~19세	32(10.0)	24(9.0)	43(14.9)	19	11
20~29세	273(5.7)	334(7.1)	323(6.9)	-11	50
30~39세	170(2.6)	177(2.8)	178(2.8)	1	8
40~49세	102(1.7)	125(2.0)	127(2.0)	2	25
50~59세	48(1.5)	66(2.0)	68(2.1)	2	20
60세 이상	18(0.8)	18(0.8)	16(0.7)	-2	-2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2003년 6월 중 대졸(초대졸 포함) 이상 실업자는 2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천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학력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와 고졸자의 실업률이 각각 0.3%포인트, 0.9%포인트 상승

- 전월대비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0.1%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대졸 이상 실업자수는 오히려 18천명 감소

<표 3>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2. 6	2003. 5	2003. 6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증감인원
전 체	643(2.8)	744(3.2)	755(3.3)	11	112
중졸 이하	124(1.8)	105(1.7)	113(1.8)	8	-11
고 졸	320(3.1)	377(3.8)	399(4.0)	22	79
대졸 이상	198(3.2)	261(3.7)	243(3.5)	-18	45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132천명(-0.6%) 감소한 22,383천명
 -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5천명)과 농림어업(-137천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15천명)과 건설업(53천명) 등에서는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40대에서 171천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는 167천명이 감소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성별 취업자는 남성의 경우 13,101천명으로 40천명(0.3%)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172천명(-1.8%) 감소한 9,282천명¹⁾
 - 2003년 6월 중 임금근로자수는 14,525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217천명(1.5%)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330천명 감소
- 전월대비 전체 취업자는 13천명(0.1%) 증가
 - 전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41천명(0.7%), 건설업에서 12천명(0.65) 증가하였으나, 제조업(-27천명, -0.6%)이나 전기·운수·창고·금융업(-9천명, -0.4%) 등은 감소

1)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참조.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2002. 6	2003. 5	2003. 6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전 산업	22,515	22,370	22,383	13	-132(-0.6)
농림어업	2,289	2,154	2,152	-2	-137(-6.0)
광업	17	16	18	2	1(5.9)
제조업	4,241	4,252	4,225	-27	-16(-0.4)
건설업	1,811	1,852	1,864	12	53(2.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014	5,845	5,839	-6	-175(-2.9)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995	6,069	6,110	41	115(1.9)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47	2,183	2,174	-9	27(1.3)

주:()안의 수치는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신규실업자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2003년 6월의 실업자를 구직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전직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0천명(15.8%) 증가한 585천명, 1년 이상 전직실업자는 1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15.0%) 증가
 - 신규실업자는 55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8천명(48.6%) 증가, 성별로는 남성이 1천명 감소한데 반해 여성의 신규실업은 18천명 증가
 - 전월에 비해서 신규실업자는 2천명(3.8%) 증가, 전직실업자도 9천명(1.3%) 증가

<표 5>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명, %)

	2002. 6	2003. 5	2003. 6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증감인원
신규실업자	37	53	55	2	18
전직실업자	605	691	700	9	95
1년 이상	100	114	115	1	15
1년 미만	505	577	585	8	80

자료: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근로시간 다소 감소

- 2003년 6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 정도 증가, 전월대비 0.4%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의 근로시간은 각각 1.2% 증가하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는 각각 1.6%, 1.2% 감소
 - 반면 전월대비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는 각각 1.0%와 0.7% 감소

<표 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시간/주)

	2002. 6	2003. 4	2003. 5	2003. 6
전 체	49.1	49.3	49.4	49.2
상용직	50.0	50.7	50.6	50.6
임시직	50.9	50.5	50.6	50.1
일용직	43.0	42.1	42.8	4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취업 다소 악화

- 통계청이 2003년 5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²⁾ 결과를 보면, 졸업/중퇴자의 실업률이 7.6%를 기록
 - 청년층 인구 중 졸업, 중퇴자는 5,690천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54.7%를 차지
 - 졸업/중퇴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3,969천명, 실업자는 325천명, 비경제활동인구가 1,396천명으로 나타남.
 - 졸업/중퇴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5%
- 2002년 6월 실시된 「청년층부가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 청년층 전체수가 258천명 감소했으며, 졸업/중퇴자도 174천명 감소
 - 졸업/중퇴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실업률도 1.5%포인트 상승함.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에서 15~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가조사로, 이전 청년층 부가조사는 2002년 6월에 실시한 것임. 단 2002년 6월 실시된 조사는 「2000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에 따라 2003년 1월 가중치가 변경됨.

<표 7> 청년층 구성

(단위: 천명, %)

	청년층 전체 인구	졸업/중퇴자	재학	휴학	기타
2002. 6.	10,663(100.0)	5,864(55.0)	4,258(39.9)	533(5.0)	7(0.1)
2003. 5.	10,405(100.0)	5,690(54.7)	4,165(40.0)	546(5.2)	4(0.0)

주: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표 8> 청년층 고용동향

(단위: 천명, %)

	졸업/중퇴자	경제 활동인구			비경활인구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2. 6.	5,864(100.0)	4,398(75.0)	4,128(70.4)	270(4.6)	1,467(25.0)	6.1
2003. 5.	5,690(100.0)	4,294(75.5)	3,969(69.8)	325(5.7)	1,396(24.5)	7.6

주: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졸업/중퇴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2002년 6월대비 1.5%포인트 상승한 36.2%(1,437천명)으로 가장 높음.

<표 9>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2002. 6.	2003. 5.
졸업/중퇴자 중 취업자	4,128 (100.0)	3,969(100.0)
농림어업	43 (1.0)	42 (1.1)
광업	3 (0.1)	3 (0.1)
제조업	857 (20.8)	841 (21.2)
건설업	242 (5.9)	208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50 (27.9)	1,050 (26.5)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1,431 (34.7)	1,437 (36.2)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402 (9.7)	389 (9.8)

주: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 졸업/중퇴 청년층 인구 중 91.0%(5,179천명)가 한번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8.0%(455천명)이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임.
- － 졸업/중퇴 후 1년 이내에 취업자의 비중은 73.2%로 2002년 6월에 74.5%에 비해 1.3%포인트 감소
- － 첫 취업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2개월로 2002년 6월에 비해 1개월 늘어남.

<표 10> 청년층 구직 동향

(단위: 천명, %)

	2002. 6	2003. 5
취업무경험자	425 (7.2)	455 (8.0)
취업유경험자	5,439 (92.8)	5,179 (91.0)
임금근로자	5,008 (100.0)	4,968 (100.0)
3개월미만	2,666 (53.2)	2,678 (53.9)
3개월~6개월 미만	644 (12.9)	547 (11.0)
6개월~1년 미만	418 (8.4)	412 (8.3)
1년~2년 미만	552 (11.0)	556 (11.2)
2년 이상	728 (14.5)	775 (15.6)
평균 구직기간	11개월	12개월

주: 1) 취업유경험자는 한번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하며, 현재 취업자가 포함됨.
 2)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통계청, 『2003년 6월 고용동향』, 2003. 7.

II. 임금동향

◆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둔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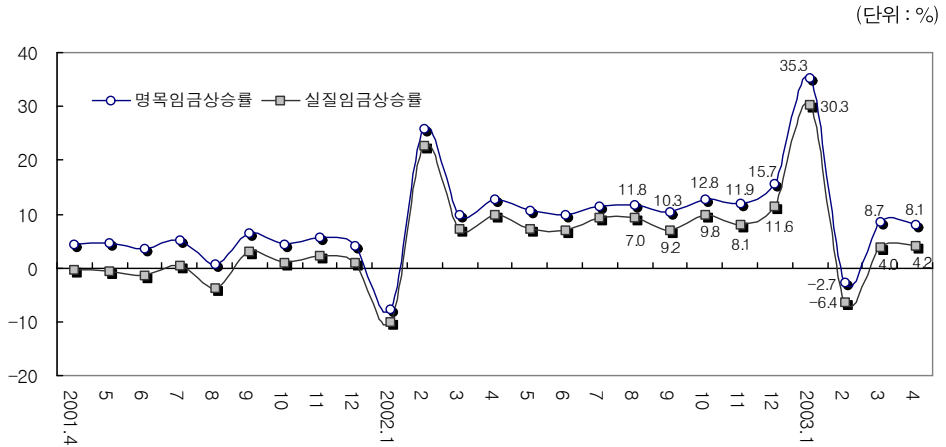
- 2003년 4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12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1% 상승
 - － 이는 전년동월의 임금총액 상승률 12.7%보다 4.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임.
 - －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2,110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2% 상승
 - － 4월까지 누계평균 임금총액은 2,08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상승
 - － 2003년 4월 임금변화의 특징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 및 정액, 특별급여 상승

률의 둔화,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지속 등으로 요약

○ 실질임금 상승률도 전년보다 5.7%포인트 하락

- 2003년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월에 비해 4.2%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실질임금 상승률 9.9%보다 5.7%포인트 낮은 것
- 올 들어 전년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3.9%포인트 낮게 나타남.
- 4월까지 누계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7.4% 상승

[그림 2] 임금상승률 추이



<표 11>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

(단위: 천원, %)

	2001. 4		2002. 4		2003. 4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임금총액	1,653 (4.4)	1,718 (5.0)	1,862 (12.7)	1,950 (13.5)	2,012 (8.1)	2,110 (8.2)
정액급여	1,236 (7.6)	1,251 (8.1)	1,384 (12.0)	1,410 (12.7)	1,503 (8.6)	1,536 (8.9)
초과급여	130 (-1.1)	148 (1.9)	126 (-3.3)	144 (-2.6)	131 (4.1)	147 (2.6)
특별급여	287 (-5.2)	320 (-4.2)	352 (22.8)	396 (24.1)	379 (7.5)	427 (7.7)
실질임금	1,588 (-0.4)	1,650 (0.2)	1,745 (9.9)	1,828 (10.8)	1,818 (4.2)	1,906 (4.3)
소비자물가	104.1 (4.8)		106.7 (2.5)		110.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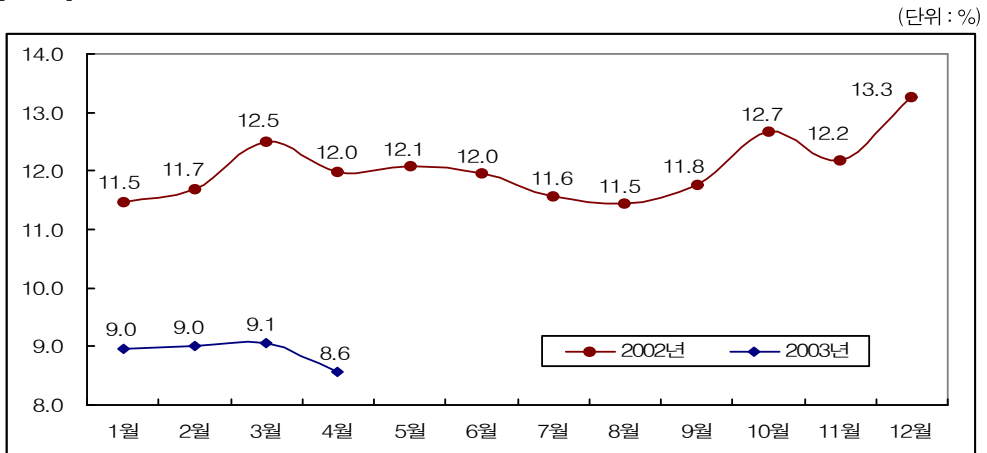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1월 이후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 전월에 이어 정액 및 특별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 2003년 4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1,503천원으로 전년동월(1,384천원)에 비해 8.6%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의 상승률 12.0%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받아 정액임금 상승률은 올 들어 한 자리수를 유지
- 초과급여 상승률은 4.1%로 전년의 -3.3%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상승폭은 2월 이후 둔화세
-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7.5%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조업(10.7%), 도매 및 소매업(31.0%), 운수·창고 및 통신업(15.6%) 등의 높은 상승에 기인
- 4월까지 누계평균으로는 정액급여 8.9%, 초과급여 7.9%, 특별급여 23.5%의 상승률 기록

[그림 3]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을 주도

- 2003년 4월 임금총액 상승률 8.1%를 100이라 놓을때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79.0%로 전체 임금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
- 초과급여의 기여율은 3.4%,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17.6%를 기록

3)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frac{\Delta TWG}{TWG} = \frac{\Delta RWG}{RWG} \frac{RWG}{TWG} + \frac{\Delta OWG}{OWG} \frac{OWG}{TWG} + \frac{\Delta SWG}{SWG} \frac{SWG}{TWG}$$

◆ 시간당 임금은 8.5% 상승

- 2003년 4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9,512원, 8,328원을 기록
 -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8.5%, 8.4% 상승한 수치임.
 -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4월 들어 총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에 따라 임금총액 상승률(8.1%)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 4월까지 누계평균 시간당 임금은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10,085원, 8,928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10.7% 상승

<표 12>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 원, %)

		2001. 4	2002. 4	2003. 4
전산업	임금총액(천원)	1,653 (4.4)	1,862 (12.7)	2,012 (8.1)
	시간당 임금(원)	7,845 (4.1)	8,765 (11.7)	9,512 (8.5)
제조업	임금총액(천원)	1,585 (5.4)	1,742 (9.9)	1,882 (8.0)
	시간당 임금(원)	7,087 (5.2)	7,685 (8.4)	8,328 (8.4)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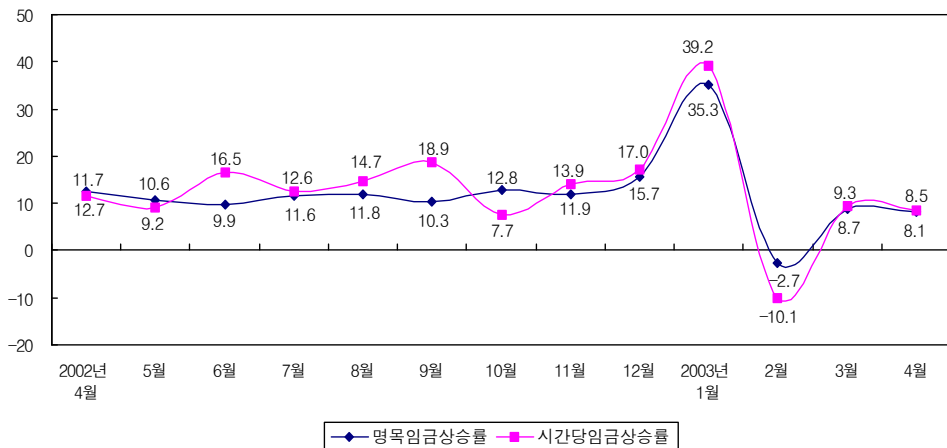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3)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4]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 저임금 산업의 임금상승률 둔화 폭이 고임금 산업보다 높아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저임금 산업의 임금상승률 저조
 - 2003년 4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5.4% 및 3.4%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 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각각 11.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표 13>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2001. 4		2002. 4		2003. 4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전 산업	1,653 (4.4)	1,718 (5.0)	1,862 (12.7)	1,950 (13.5)	2,012 (8.1)	2,110 (8.2)
제조업	1,585 (5.4)	1,626 (5.9)	1,742 (9.9)	1,790 (10.1)	1,882 (8.0)	1,933 (8.0)
건설업	1,529 (0.2)	1,640 (0.7)	1,790 (17.1)	1,994 (21.6)	1,925 (7.6)	2,134 (7.0)
도매 및 소매업	1,569 (10.4)	1,631 (13.1)	1,800 (14.7)	1,891 (15.9)	2,012 (11.8)	2,146 (13.5)
숙박 및 음식점업	1,151 (6.1)	1,316 (8.7)	1,366 (18.7)	1,542 (17.2)	1,440 (5.4)	1,613 (4.6)
운수창고통신업	1,870 (1.7)	1,904 (1.4)	2,008 (7.4)	2,046 (7.5)	2,245 (11.8)	2,289 (11.9)
금융 및 보험업	2,265 (1.6)	2,297 (0.5)	2,783 (22.9)	2,892 (25.9)	2,932 (5.3)	3,022 (4.5)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434 (3.4)	1,468 (6.0)	1,725 (20.3)	1,808 (23.2)	1,784 (3.4)	1,860 (2.9)
사회개인서비스업	1,707 (3.9)	1,833 (3.8)	1,940 (13.6)	2,104 (14.8)	2,097 (8.1)	2,293 (9.0)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지속

-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5~9인 사업체의 1.9배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규모가 전년동월에 비해 9.8%로 가장 높고, 5~9인 규모는 4.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
 -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모든 규모에서 확대
 - 전년동월과 비교한 500인 이상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3.7 포인트의 가장 큰 증가를 보임.

<표 14>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 %)

	2001. 4		2002. 4		2003. 4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전 규모	1,653 (4.4)	76.3	1,862 (12.7)	73.0	2,012 (8.1)	71.8
5 ~ 9인	1,282 (4.0)	59.2	1,383 (7.8)	54.2	1,450 (4.9)	51.8
10 ~29인	1,503 (6.2)	69.4	1,605 (6.8)	62.9	1,695 (5.6)	60.5
30 ~99인	1,568 (7.5)	72.4	1,792 (14.3)	70.3	1,880 (4.9)	67.1
100~299인	1,729 (4.8)	79.9	2,032 (17.5)	79.6	2,204 (8.5)	78.7
300~499인	2,017 (12.6)	93.2	2,325 (15.2)	91.1	2,448 (5.3)	87.4
500인 이상	2,165 (2.4)	100.0	2,551 (17.8)	100.0	2,802 (9.8)	100.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성별 임금격차 확대 지속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2003년 4월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8.6%를 기록하여 여성의 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2.3로 전년동월(63.5)과 비교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2002년 10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동월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

<표 15> 성별 임금상승률

(단위: 천원, %)

	2001. 4		2002. 4		2003. 4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전 체	1,653	4.4	1,862	12.7	2,012	8.1
남 성	1,868 (100.0)	4.4	2,096 (100.0)	12.2	2,278 (100.0)	8.6
여 성	1,176 (62.9)	5.3	1,331 (63.5)	13.2	1,418 (62.3)	6.5

주: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임.
 3) ()안은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3년 6월 협약임금 상승률 6.7%를 기록

- 2003년 6월 30일 현재 협약임금 상승률(임금총액 기준)은 6.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6.7%과 동일
 -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 업체의 비중은 86.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89.1%보다 감소
 - 반면 동결업체 및 하향 조정업체의 비중은 각각 13.7%와 0.2%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8%, 0.1%보다 증가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상승률은 6.7%로 전년동기의 6.9%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6.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4.0%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임금교섭은 전년동기에 비해 더디게 진행중
 - 2003년 6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 중 1,856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32.3%의 진도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의 38.9%에 비해 더디게 진행중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32.9%로 5,575개소 중 1,835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176개소 중 21개소가 타결되어 11.9%의 진도율을 기록

<표 16>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3년 6월 30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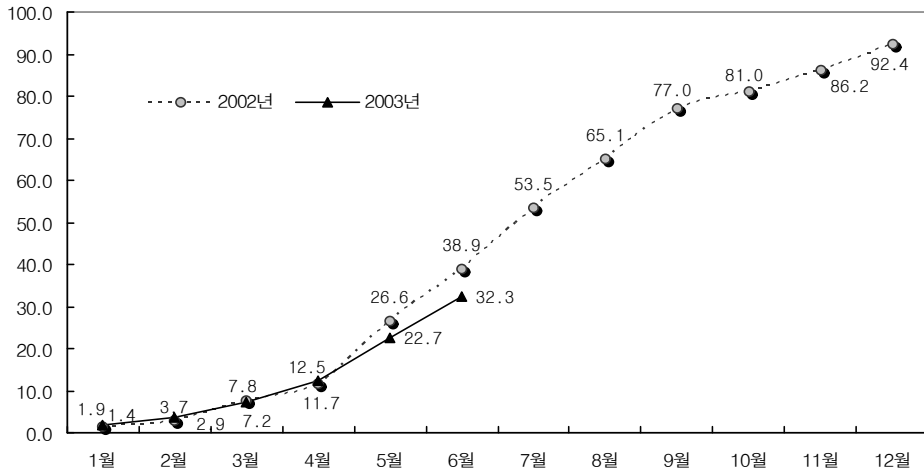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 (A)	타결업체 (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5,751(5,401)	1,856(2,103)	32.3(38.9)	6.7(6.7)
민간부문	5,575(5,236)	1,835(1,414)	32.9(39.5)	6.7(6.9)
공공부문	176(165)	21(37)	11.9(22.4)	6.7(4.0)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5]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2, 2003년)



노 동 동 향

노사관계

윤문희*

I. 임금교섭 및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분규참가자수 증가, 근로손실일수 감소

- 2003년 7월 16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와 참가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하며, 근로손실일수는 감소(표 2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4건과 비슷한 수준
 - 분규참가자수는 79,19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6,183명으로 비슷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497.5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96.4천명에 비해 감소
 - 임·단투의 본격화 및 철도노조 등의 대규모 사업장 분규의 발생으로 노사분규의 발생건수와 분규참가자수가 지난달에 비해 크게 늘어남. 그러나 파업일수가 대체로 짧아 근로손실일수는 작년에 비해 감소함.
 -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대폭 늘어남. 이것은 작년에 비해 임·단협 투쟁이 늦게 시작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림 2 참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mhyi97@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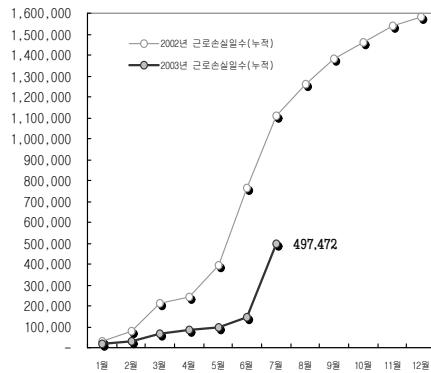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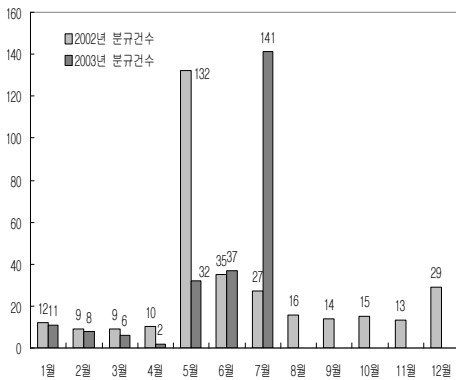
<표 2>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건, 명, 천일)

	2001. 7. 15	2002. 7. 15	2003. 7. 15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	135	224	237<10>
분 규 참 가 자 수(명)	54,829	76,183<732>	79,195<714>
근 로 손 실 일 수(천일)	441.8	996.4	497.5

주: < >안은 전년 이월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해결 부분임.
 자료: 노동부.

[그림 2]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2, 2003년)



II. 노동정책 동향

◆ 최저임금 시간급 2,510원으로 심의·의결

- 최저임금위원회는 6. 27.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2,510원, 8시간 기준 일급 20,080원(월환산액 567,260원, 226시간 기준)으로 심의·의결
 - 금번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2002년에 비해 10.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7.6%에 해당하는 103만명이 이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액은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700,600원, 36.6% 인

상)과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안(553,700원, 1.07% 인상)이 상당한 차이를 보임. 공익위원은 7~15%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에 대하여 반대한 노동자 위원 전원(9명)과 공익위원 2명이 6. 26. 사퇴함. 6. 27. 개최된 회의는 노동자 위원과 일부 공익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6명만으로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최종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이루어짐.
- 이와 같이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 5.까지 결정·고시하여 금년도 9. 1.부터 시행됨.

○ 최저임금 심의·의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 민주노총은 7. 7. 의결된 최저임금이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내용이라 지적하고,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의 과정에 있어서도 각 노사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요구
- 한편 한국노총은 7. 11. 최저임금결정의 법적 절차상 하자, 최저임금 목적의 위배, 최저임금의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요구

◆ 2003년 7월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 개정배경

- 산재법의 적용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불합리한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근로자 보호
-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신종 직업병 출현, 그동안 의학적 연구성과 및 변화된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보완·현실화

○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중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건설공사와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건설공사 및 농림어업의 적용범위 확대(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 향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시행령 제24조 제1항)
-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하되, 기지급한 장해보상연금전급금이 발생한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보다 많을

-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도록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산식 개정(시행령 제30조의 2)
- 전문간병인과 무자격자를 구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병인에게 보다 많은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간병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간병인 자격요건 신설(시행규칙 제25조)
 - 산재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업이 어려운 산재장애근로자의 취업 지원 및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산재장애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도입(시행령 제82조의 2 및 시행규칙 제87조의 2 신설)
 - 심사위원회의 회의시 위원수가 고정(본회의 9인, 소위원회 5인)되어 있어 안건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하여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상임위원이 없어 본회의는 8인,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 안건의 효율적 심리를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운영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구성 등(시행령 제101조, 제105조 및 제105조의 2, 시행규칙 제89조의 2 신설)
 - 동일한 흉터 장애에 대해 남·여에 따라 장애등급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남·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2002. 12. 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 권고), 현재 진폐증 관련 장애등급에 대해 제11급(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가 있으나, 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모흉터장애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 진폐장애등급 추가 및 합병증 범위 확대(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
 - 간병료 지급대상 항목 중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등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 자의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시행령 별표2의 2)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임금·단체협약 교섭 본격화

- 금속노조 산별 중앙교섭 및 임·단협 타결지연 파업 돌입
 - － 금속노조는 산별 중앙교섭 및 임·단협 타결지연 등에 반발 6. 25.부터 지부별 집회참가 등의 형태로 부분파업 돌입
 - － 금속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에서 2003년 10월부터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40시간 실시 등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만도지부 등 전국 35개사 노조원이 작업거부·지부별 집회참가 등의 형태로 전면 및 부분파업 계속
 - － 금속노조와 100개의 사업장의 사용자대표들이 15일 경주 청소년수련관에서 13차 교섭을 갖고 △ 기본협약 자동연장 △ 올해 10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 △ 사내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 노조 활동시간 보장 등에 합의
 - － 7. 22. 전국 9개 지부 26개사 작업거부형태로 전면 및 부분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8. 6.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 등 재논의 예정 결정
- 한국노총은 6. 30. 임·단투 승리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 이날 전국택시노련 등도 시한부 파업 실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임·단협 협상 돌입
 - － 6. 24.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 11. 지방공사의료원 파업, 7. 16. 국·사립대병원 파업 결의
 - － 6. 25.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일괄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6. 30. 서울대병원 등 국·사립대병원 10개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일괄제출
 - － 7. 16. 파업예정이던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지부와 고대의료원, 원광의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3개 사립대병원지부 교섭타결

○ 화물연대 부분파업

- 5. 15. 노정합의 이행, 구속동지 석방 등을 촉구하는 7. 7. 파업찬반투표를 유보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최
- 7. 8. 1차교섭에서 화물연대와 운수업체는 성실교섭과 화물연대 탄압 중지 등에 합의하였으나 7. 11. 2차 교섭에서 운임비 등의 사항에 합의하지 못함.
- 7. 14. 화물연대 BCT(Bulk Cement Trailer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 완제품을 탱크에 담아 생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이며 4,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종사자 가운데 2,500여명이 화물연대에 가입)지부(준)는 (주)성신양회 물량운반을 전면 거부하였으나 7. 16. 성신양회(주)와 ‘향후 운송물량 배정시 화물연대임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등’에 합의 7. 17.부터 운송재개
- 화물연대는 7. 17.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7. 21.~7. 31.까지 파업찬반투표 진행 결정

◆ 철도노조 파업-철회

○ 6. 28.부터 철도노조는 전노조원 사복투쟁 및 철야농성 도입

-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의 단체협약안의 정부파기와 철도구조 개혁 입법추진에 반발하여 6. 28.부터 지부별 파업돌입
- 정부는 6. 28. 새벽 철도노조의 농성장 전국 5개소에 공권력 투입. 파업참가자 중 1,519명 연행 전국 경찰서에서 분산조사 후 454명 훈방조치
- 철도관련법의 국회통과와 여론악화로 7월 1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참가자 4,070명 중 2,655명 파업철회 찬성(65%)으로 파업철회